



## “박정찬 사장 연임은 부당하다” 연합뉴스노조, 주주사에 연임저지 촉구 서한 전달

연합뉴스 노조는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0일 주주사를 방문해 박정찬 사장 연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펼쳤다.

본사 조합원 130여명 이날 오전 10시30분 본사 건물 8층에 모여 조별 모임을 하고 방문 계획을 짰다. 쟁의대책위원회는 뉴스통신진흥회를 맡고, 5개 조로 나뉜 본사 조합원은 조당 주주사 2군데를 가기로 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오철호 이사장에게 박정찬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추천한 것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뉴스통신진흥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안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구했다.

오 이사장은 이번 사장 추천은 노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심사숙고해 내린 것이라며 중지를 모아 결정한 사안을 뒤집는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노조측 요구를 에둘러 거부했다.

본사 조합원 1조는 KBS, MBC, 2조 서울신문, 매일경제, 3조 조선·동아일보 4조 경향신문, 중앙일보, 5조는 한국일보, 한국경제를 각각 방문했다.

사전에 미리 연락하고 간 덕분에 각 주주사 담당자들에게 공문을 별 탈 없이 전달했고, ‘인증샷’도



연합뉴스 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20일 뉴스통신진흥회를 방문해 오철호 이사장에게 박정찬사장 연임저지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찍었다. 주요 주주인 KBS를 방문했을 때 KBS 관계자가 연합뉴스 조합원이 파업 중인 KBS 노조와 연대집회를 하러 온 줄 알고 긴장하기도 했다.

지방취재본부 조합원들도 각 본부가 있는 지역의 주주사에 박 사장 연임저지 촉구 서한을 보냈다.

경남본부는 경남신문과 경남MBC를 방문해 서한

을 전달했다. 강원본부는 춘천MBC와 강원일보에, 광주전남은 광주MBC, 광주일보, 경기는 경인일보, 제주는 제주MBC에 각각 박 사장 연임의 부당성을 알렸다. 주주사가 없는 인천의 경우 조합원들이 거리에서 시위와 선전전을 벌였다.

## 연합뉴스 독립성 보장의무 저버린 뉴스통신진흥회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뉴스통신진흥법이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 목적과 업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그러나 연합뉴스 노조 쟁의대책위원회가 뉴스통신진흥회를 방문했을 때 보인 오철호 진흥회 이사장의 태도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쟁대위는 박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추천한 것은 범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진흥회가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하도록 촉구했다.

오 이사장은 이에 “(이사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오늘까지 왔다”며 “중지를 모아 내린 결정을 뒤집는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정찬 사장에 대한 평가도 노조측과 달랐다.

차기 사장 추천에 지난 3년간 박 사장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냐는 물음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며 노조의 경영평가를 비롯한 노조 측 입장을 다 알고서 내린 결정이라고 오 이사장은 답했다.

박 사장의 3년간 행적이 차기 사장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압도적인 다수의 연합뉴스 조합원이 박 사장의 연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컸다.

임원진 추천에서 진흥회의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도 했다.

특정 후보를 임원으로 낙점한 것은, 탈락한 후보는 임원으로 뽑히지 않았을 때 현 지위를 유지하지만 그 특정 후보는 임원에 탈락하면 갈 곳이 없게 된다는 동정론이 일어 그렇게 됐다고 말했던 것.

연합뉴스를 이끌만한 자질을 갖췄는지를 평가해

임원을 추천해야 함에도 인정에 이끌려했다는 것은 진흥회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들게 한다. 한 조합원은 이를 두고 “연합뉴스가 노후보장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고 야유하기도 했다.

현재 연합뉴스 파업사태에 대해선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오 이사장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진흥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쟁대위의 요구에 “연합 내부의 문제로, 사장과 임원을 추천하는 기관이 그 상황에 간섭해 풀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오 이사장과 면담을 마치고 떠나는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박 사장 연임은 박 사장에게 개인 명에 문제이지만 연합뉴스로서는 천명의 삶이 달린 문제”라고 전향적인 주주권한 행사를 재차 호소했다.

# 지금 지역취재본부는 투쟁중

## 경남·부산본부 김해 봉하마을 방문기

연합뉴스 경남취재본부 조합원들은 부산본부 조합원과 함께 지난 19일 김해봉하마을을 찾았다.

경남본부는 총파업 대오에 힘을 보태고자 이웃인 부산본부에 '연대 투쟁'을 제안했고, 부산본부가 이에 흔쾌히 응함에 따라 이날 모임이 성사됐다.

두 본부가 함께 모인 건 10여년 전 단합대회를 한 이래 처음이다.

모인 장소는 부산과 경남의 중간 지역인 김해로 정해졌다.

이곳은 3년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선배들이 '연합뉴스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했던 곳이다. 당시와 같은 경험이 앞으로는 되풀이 돼선 안된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때는 '연합뉴스' 스티커를 떼고서야 출입했지만, 이날은 경남·부산 조합원 10여명은 "분노하라 연합뉴스" 배너를 들고 찾았다.

경남본부에서는 부장부터 막내까지 8명 전원이 참석했고, 부산본부에서는 6명이 왔다.

오랜만의 만남인 탓에 마을 뒷산을 오르며 서로에게 그간의 안부를 전하는 등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

그 중 화두는 단연 '공정보도'와 '연합뉴스바로 세우기'였다.

경남본부의 김재홍 조합원은 "기사에 오타 하나가 나가는 것에도 낮이 뜨겁다"며 "내가 쓴 기사가 기록으로 남을 텐데 한 줄을 쓰더라도 땀땀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영만 조합원은 "봉하마을을 방문하니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며 "노사가 '소통'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의 오수희 조합원은 "공정보도 회복을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며 '투쟁'을 외쳤다.

'23년만의 파업'에 다들 이런저런 생각은 많았지만 연합뉴스가 국민 앞에 땀땀한 통신사가 되길 원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1시간여의 산행이 끝난 뒤 조합원들이 향한 곳은 김해 진영의 돼지생갈비집.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투쟁'을 외치는 목소리가 간간히 튀어나왔고, '투쟁정신'으로 무장한 탓인지 다들 '소맥' 10잔을 넘게 마셔도 정신은 말짱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이지만, 경남·부산본부 조합원들은 이 파업의 결말이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며 하루일정을 마무리했다.



## 울산본부 문수산 정복기

"파업이 이런 기회도 주네요."

울산취재본부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단합의 계기가 됐다.

이상현, 장영은, 김근주 조합원은 지난 19일 울산 문수산을 올랐다. 울산본부 조합원은 서진발 조합원을 포함해 4명밖에 안 되지만 막중한 취재와 업무로 조합원끼리 살가운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다.

산을 오르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이는 장영은 조합원. 홀로 등산 스틱까지 준비했지만 육중한 그의 체중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이 잔걸음으로 등산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지쳐 울산 시내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로움'을 혼자 만끽하기도 했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조합원이 "장 동지, 포기하면 아니, 아니, 아니되요. 힘을내시오"라며 힘을 북돋웠다.

정상을 정복하고서 하산길에 인근 식당에 들러 갓 만든 순두부와 칼국수를 먹으며 이번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파업의 의미와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결론은 파업이 승리로 끝나고 일터로 돌아가자는 것.

조합원 모두가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며 서로 다독였다.

# 글로벌 파업투쟁...특파원 파업일지

※이번 특파원 파업일지는 파업을 맞아 귀국해 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차대운 조합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차 조합원과 이메일로 일문일답한 내용을 유현민 조합원이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차 조합원과의 일문일답.

--어떤 마음에서 파업 출정식에 참여하게 됐나요.

▲파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조합원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파업 초기에 최대한 사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파업 출정식에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귀국에 '투쟁'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등 지방 동료도 파업 현장에서 뵈었습니다. 파업 투쟁에 나선 누구나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도 결심하기까지 쉽지는 않

았을 텐데요.

▲제가 사건팀 기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이 부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괴롭혔던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미 '장성'한 그 친구들에게 저는 당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세뇌'에 가까운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배 중 하나가 파업을 며칠 앞두고 제게 메신저로 '선배 오실거죠?'라고 했습니다. 뭐라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이때 결정적으로 귀국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아내가 반기지 않았습니. 그냥 파업에 동참하면 되지 굳이 한국까지 가느냐는 것이었지요. 같이 사는 장모는 많이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장모는 중국 분이신데 중국 사람들은 문화혁명, 천안문 사태 같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데모에는 '경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장모가 한국에 가기 전날 어디서 들었는지 '파업 때문에 가느냐'고 물으시더니 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연합 파업과 관련한 기사를 자주 보더니 아내도 나중에는 이왕 가는 김에 잘 다녀오라고 격려의 말을 해줘 고맙습니다.

--직접 서울 투쟁 현장에 다녀오니 어떻던가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격언이 딱 맞는 듯합니다. 인터넷으로 본사 동료가 올려준 글을 보거나 사진을 보는 것과 현장에서 느낀 열기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 또한 주저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백명의 본사 동료가 보여준 열기는 이런 저의 느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데모꾼'들이 아니어서 아직 우리 파업 현장은 '아마추어'적인 분위기였습니다만 열기는 정말 뜨거웠

습니다. 특히 파업 첫날밤 새벽까지 회사 옆 포장마차에서 여러 선후배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함께 부르며 술잔을 나눴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특파원에게도 귀국을 권유하고 싶나요.

▲지리적 거리와 '위수 지역 이탈' 논란 등이 있어 다른 특파원들이 귀국하라고 권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두고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부담도 됩니다. 다만 연합뉴스를 바로 세우는 파업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른 특파원 동료께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동아시아 등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특파원들부터 짧은 일정으로 '릴레이식'으로 들어가 본사 동료와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